

# 보은산 둘레길 전 구간 개통... '숲속 힐링로드' 완성

## 강진군, 자연을 걷는 즐거움과 일상 속 심포 제공... 강진형 생태관광 기반 마련

강진군이 조성한 '보은산 트레킹길(둘레길)'이 15.6km 전 구간을 모두 연결하며 자연을 누리는 생태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강진읍과 군동면, 작천면, 성전면을 아우르는 보은산 일원에 단계적으로 조성된 이 숲길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일상에서 자연을 마주하고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주목받고 있다.

보은산 트레킹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장기 프로젝트로, 4개 구간에 걸쳐 트레킹 코스 완성되었다.

1차구간은 강진읍 동성리에서 군동면 파산리를 잇는 3.2km, 2차구간은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천면 평기리로 이어지는 2.8km, 3차구간은 작천면 평기리와 성전면 명산리를 연결하는 약 2.0km가 개설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성전면 명산리

에서 강진읍 남성리로 다시 돌아오는 약 2.3km의 4차구간이 올해 조성됐다.

트레킹길 전 구간에는 목계단, 폐수로, 돌이자, 이정표 등이 설치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완만한 경사와 자연 친화적 노면 설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사계절 변화하는 숲의 경관은 걷는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트레킹길 전 구간을 안내하는 이정표 제작과 전망이 좋은 장소에 의자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성전면과 작천면 방면에서 트레킹길로 올라갈 수 있는 연결노선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은 "보은산 트레킹길은 강진이 가진 숲의 매력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낸 길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소중한 쉼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자연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은산 트레킹길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숲길을 따라 이어지

는 고요한 풍경과 맑은 공기는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되어주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강진형 힐링로드'로 자리잡으며, 강진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 보성군, 일본 시즈오카 벤치마킹 통해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 시동

### 전남형 차산업 고도화·관광 자원화 사업 연계, 글로벌 '말차수도'로!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4박 5일)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말차(抹茶) 시장의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 보성 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성차생산자조합 및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여해 일

본의 첨단 제다(製茶)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을 확인했다.

시즈오카는 일본 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차(茶) 중심지로, 품질 표준화, 과학적 생산관리,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확립한 지역이다.

군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말차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스마트 가공·품질 관

리 시스템,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K-TEA 보성말차' 산업의 고급화 및 세계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시즈오카현립 차업연구센터를 방문해 차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스마트 에너지 다원인 스톱카 솔라 차원과 오부치 사사바 계단

식 차밭을 견학해 생산 현장의 첨단화 모델을 살펴봤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선진 제다 기술과 품질관리 비결을 재해석해 보성말차 산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스마트 가공시설 확충과 친환경 말차 재배단지 조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생산에서 체험·관광·수출로 이어지는 통합형 차산업 체계를 완성해 '글로벌 녹차수도 보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성/김은기 기자

## 무안군, 물맞이골 숲 걷기 및 체험 행사 개최

### 국화 향기 따라 떠나는 숲속 탐험, 숲으로 물드는 '가을날의 하루'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주말 2일간 무안 물맞이골 산림욕장 및 불무공원 일원에서 '물맞이골 숲 걷기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위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와 연계한 숲 걷기 행사 추진으로 국민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물맞이골에서의 행사를 통해 치유의 숲 등 무안의 산림복지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숲속에서 걷고, 즐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예정이다.

본래 올봄 개최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구제역 확산 등의 이유로, 가을로 연기해 추진됐으며 '레트로 가을소풍'을 주

제로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8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다양한 부대행사, 음악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행사 장소는 두 곳에서 진행되며 물맞이골 산림욕장에서는 숲 걷기 스탬프 투어, 숲 해설, 정원 투어가 진행되고, 불무공원에서는 반려식물 만들기, 보물찾기, 숲속 작은 책방, 페이스페인팅, 레트로체험(달고나, 뽑기 등), 김밥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안군 제공

## 영암군, 외국인 노동력 확보 노력 3년 연속 전남 최다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218건 발급... 우수 노동력 확보 결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올해 10월 말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218건을 발급해 3년 연속 전라남도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재(E-7-4R), 지역특화 동포비자(F-4-R) 등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한국에 초청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전남 최다 발급은, 영암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 주

력 산업인 조선업과 농·축산업 분야 우수 노동력 확보에 노력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지역우수인재 28명, 숙련기능인재 182명, 지역특화동포비자 8명에게 추천서를 발급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진행된 2023년에는 126명, 본 사업이 이어진 2024년에는 111명을 추천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조선업과 농·축산업 분야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정 속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우수 인력 확보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 곡성군, 연말맞이 '미리크리스마스 덤+덤 이벤트'

###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시즌 최대 200% 증량 이벤트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을 위해 특별한 '미리 크리스마스 덤+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한정 진행되며, 곡성 담례품목의 인기 상품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200% 이상 증량된 담례품을 제공한다.

대표 품목으로는 ▲곡성축협 한돈 삼겹살&목살&주물럭 ▲지리산순한 한우 불고기 ▲석곡농협 잠자리가노닐단 쌀 ▲옥과농협 세척사과 ▲옥과 맛있는 김치 등이 있으며, 기부자는 기존보다 훨씬 알찬 담례품 구성을 받아들 수 있다.

곡성군은 현재 인구 소멸을 막고, 고령화된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등 민간플랫폼을 통해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의 지정기부사업을 모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더해 기부자에게 최고의 상품을 가장 푸짐하게 돌려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기부를 통해



곡성군의 지역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위기브), 시중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 광양시, 철강산업 위기 대응 위해 전국 철강도시와 머리 맞대

### 범정부 차원 대책 추진 건의에 뜻 모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고율 관세(50%)가 유지된 가운데, 철강산업 중심 도시인 광양·포항·당진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11월 3일 열린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에서 세 도시가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완 광양부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최근 철강이 한·미 관세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고율 관세가 유지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이며, 포항·광양·당진이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고율 관세 조치가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 전체 제조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논의 결과, 세 도시는 ▲대미 후속협상을 통한 철강 품목 재논의 촉구 ▲광양·당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확대 지정 ▲포항·광양·당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K-Steel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속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의 지역 맞춤형 실효성 강화 ▲4차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자체·기업·상공회의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철강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해 철강산업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정완 광양부시장은 "철강산업은 광양경제의 중추이자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심장"이라고 역설하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확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도 국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알고도 싶은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작정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가서**

**기어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살아**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새감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야**

**및 장이나 될까,** **잠시** **우리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평범적인 **필연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득한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만**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만**

그 자체만으로도 **만**

좋은 거라면 **만**

은 언제나 우연 **만**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우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